
Global Report

저유가 시대와 기후변화

1. 개요
2. 미국기준유가 최저 기록
3. 저유가와 기후변화
4. 저유가와 대체에너지
5. 저유가로 인한 대기오염
6. 결론

1. 개요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해 세계가 오랜 기간 노력해 오는 동안에 유일한 걸림돌이었던 것이 석유다. 화석연료의 생산과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내뿜게 되는 소비활동은 현대 사회의 중심축이다. 그것은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힘이며 그 업계의 거대 기업들이 막강한 정치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막강한 그 석유업계가 달라지고 있다.

2. 미국기준유가 최저 기록 -배럴당 마이너스 \$40

알다시피 미국산 석유 기준가는 2020년 배럴당 60달러로 출발했었는데 가격전쟁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창궐로 인해 4월 중반에 마이너스 40달러의 저유가를 기록했지만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다른 말로하면 원유생산업자가 돈을 받기는커녕 원유를 공짜로 내주면서 웃돈을 얻어준다는 말이다. 원유생산국의 감축 합의 불발과 급격한 소비위축이 불러온 괴이한 상거래다. 그럼에도 유조선들이 바다를 빙빙 떠돌고 원유저장용 탱크가 가득 차 있다고 한다. 에너지경제 재정분석연구원의 금융국장 Tom Sanzillo는 "근본적인 사업구상이 산산이 부서져 버려서 거의 막장에 다다른 업종이 바로 이 석유사업입니다" 라고 말한다.

3. 저유가와 기후변화

기후변화 활동가들이 이 모든 것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결코 놀랄 일이 돼 선 안된다. 지금 석유업계가 직면한 역풍이 잦아들 것 같지 않다는 것에 동의하는 분석가들이 있음에도 원유가는 점차 오를 것이다. 석유업계가 이런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든 헤쳐나갈 것이 거의 확실하고 또 그것이 기후변화에 맞선 싸움의 미래를 결정짓는 열쇠가 될 것이다. 이런 저유가 시대가 기후변화 활동가들에게 도움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자유낙하중인 원유가 때문에 그 업계의 투자 의욕에 구멍이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4. 저유가와 대체에너지

유가 20달러가 지속 될 때 올해 말까지 파산할 미국원유생산기업 수 140개

지난 수십 년 동안 석유사업이 투자자에게는 노다지 같았으며 그로인해 석유기업이 수익성 뛰어난 세계적 대기업으로 군림했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 대창궐 이전인 작년에도 이미 S&P 주가상 최악의 실적을 보였다. 금년 들어 그 실적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미국산 석유의 주요 기준가인 서부텍사스산 중질유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후에 4월 28일이 되어서야 배럴당 13달러 부근까지 반등했었다. 그 정도 원유가는 서부 텍사스의 석유생산업자들이 새로운 유정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배럴당 50 달러에 훨씬 밑도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서 다른 에너지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원유생산량이 작년 실적을 결코 회복하지 못하리란 분석이 있다. 이런 큰 재앙이 닥친 상황에서는 석유업계 성장과 생존에 필요한 자본을 끌어내기 어렵게 된다. 저유가는 주가를 떨어 뜨려 사업자금 차입비용이 늘어난다. 이 때문에 어떤 기업들은(특히 소규모 업체들) 파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역경에 처한 기업들이 생존하려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현물자산을 축소할 수도 있고 청정에너지에 투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기업이 미래지향적이면서 추세에 어긋나는 사업을 벌이지 않으리란 걸 사업 주체들이 시장에 어떤 식으로 보여줄지를 묻게 될 것이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가 그런 과정을 5년 정도 앞당겼다" 라고 미국의 컨설팅사 EY의 석유 및 가스 팀장 Deborah Byers는

말한다.

5. 저유가로 인한 대기오염

모든 사람들이 저유가가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낙관하지는 않는다. 저유가로 인해 기름값이 떨어지면 차량운행이 늘어나고 소비재 사용 또한 증가해 탄소배출이 급속히 늘어난다. 저유가는 기업들의 탄소배출억제 추세를 앞당길 수 있는 주요 유인책을 제거해 버린다. 예를들면, 운송업체가 사업용 트럭을 대량구매 할 때 전기 트럭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고, 식품업체가 석유가공제품인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줄여 친환경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몇 년 더 지연될 것이다. Oil Change International 선임연구분석 담당자 Lorne Stockman은 "원유값이 아주 싼 이상 사업을 친환경적으로 바꾸기는 매우 어렵다.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려는 정책을 적극 옹호하는 기후변화저지에 부합하는 정책이 없을 때는 특히나 힘들어진다"고 설명한다.

많은 기후변화 활동가들에게 있어 또 다른 핵심 관심사는 유가가 떨어지는 시기에(미국에서 원유 채굴시 함께 생산돼 역시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천연가스가 전력생산의 주요 원자재로 위치를 확고히 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기간산업의 정책 결정권자들이 앞으로 재생 가능한 대안을 찾기보다는 값싼 천연가스에 매달리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다. 에너지의 사회기반시설은 사업주기가 장기간이므로 그런 저유가에 따른 전략전환은 수십 년간에 걸친 탄소대량배출에 공공 뭉이게 될 것이다.

6. 결론

미국 내 원유소비로 발생하는 에너지 관련 탄소배출 비율 45%

앞의 견해들이 '저유가로 인해 에너지전환 정책이 멈출 것이다'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어찌하든 지 간에 그런 전환은 나타나기 마련이고 관건은 얼마나 빠르냐는 것이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세계 정치 지도자들은 경제회복 방안에 몰두하게 될 것이다. 그 지도자들은 저유가에 반색하며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힘을 쏟을지, 아니면 장기 관점에서 경제 추이와 기후변화의 위험을 인식해 가면서 청정에너지에 투자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Covid-19 에서 벗어나 회복될 때 에너지분야에서는 어떻게 될지, 어떻게 균형추를 움직이게 될지에 관해 수없이 많이 토론했습니다. 앞서 겪은 충격에서 배운 교훈은 - 멍청한 짓을 해선 안돼!- 라는 것 입이다." 이것은 미국 Tufts대학교 Fletcher 대학원장이자 관록 있는 기후전문가인 Rachel Kyte이 화석연료 의존증을 거론하며 한 말이다.

그런데 유난히도 미국에서는 경제회복 촉진전략이 업계의 구조적 전환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유, 가스 기업들을 기존대로 유지하며 활성화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Donald Trump 대통령이 그런 정책을 밀어부치며 "결단코 미국내 원유, 가스산업이 주저앉게 하지는 않을 것"을 다짐한다고 4월 21일에 트윗을 날렸다. 하지만 지구는 계속해서 더워지고 있으며 기후변화가 곳곳에서 일으키는 재앙을 피할 수는 없다. 그저 막연히 현재 진행 중인 경기회복방안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건 간에 기후전문가 Rachel Kyte의 격언을 마음에 되새기게 될 것이다.

<원문제목> Will Low Oil Prices Help or Hurt the Fight Against Climate Change? That Depends on Us

<원문출처> 05/02/2020 TIME - Environment